



미국 내구재 주문: 헤드라인은 예상 상회했지만 항공기 제외 핵심자본재 주문은 예상 밑돌며 둔화

2026. 10. 27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핵심 요약

- 9월 내구재 주문은 헤드라인 **+1.8%**로 시장 예상 **+1.7%**를 소폭 상회했고, 전월 수정치 **+0.1%**에서 가속했다.
- 상회분은 **비방위 항공기 · 부품** 한 품목이 주도했고,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핵심자본재 주문**은 **+0.5%**로 예상 **+0.7%**를 하회했다.
- 현재 생산 · 출하는 견조하지만 향후 발주 의향은 둔화해, 이번 지표는 추가 인상 · 보류 논거 어느 쪽도 새로 강화하지 않는 **중립 재료**다.

내구재 신규주문은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투자 · 생산할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그중에서도 방위산업과 항공기를 제외한 핵심자본재 주문은 향후 몇 달 설비투자의 흐름을 가늠하는 선행지표로 특히 중요하게 다뤄진다. 직전 발표에서 이 핵심자본재 주문은 **+1.6%**로 확대 국면을 보였던 반면, 헤드라인 자체는 수정치 기준 **+0.1%**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9월 수치는 표면과 실제 내용이 갈린다. 헤드라인 **+1.8%**는 예상을 웃돌았지만, 전월 대비 늘어난 금액 중 약 **89%**가 비방위 항공기 · 부품 단일 품목(**+28.4%**)에서 나온 것으로, 제조업 수요가 전반적으로 급반등했다고 읽을 수 없다. 이 항목을 뺀 운송 제외 핵심 지표는 **+0.5%**(전월 **+0.3%**)로 완만한 플러스를 이어갔고, 기계 · 컴퓨터전자 · 1차금속은 늘고 통신장비 · 전기장비는 줄어드는 혼재된 그림이다.

더 주목할 부분은 핵심자본재 주문 자체가 **+0.5%**로 예상을 하회하고 전월 **+1.6%**에서 뚜렷하게 둔화한 점으로, 앞으로의 발주 의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다. 반면 실제 생산 · 인도를 뜻하는 출하는 전체 **+0.9%**, 핵심자본재 출하 **+1.2%**로 견조해, 현재 시점의 생산 활동 자체는 꺾이지 않았다.

이 조합이 지금 국면에 주는 의미는 양쪽으로 갈린다. 출하가 견조하다는 것은 총수요가 아직 식지 않았다는 증거로 금리 인상을 늦출 근거가 되지는 않지만, 핵심자본재 주문의 둔화와 예상 하회는 앞으로의 투자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는 쪽이다. 두 힘이 상쇄되면서 이번 지표는 Fed가 추가로 금리를 올릴 근거를 새로 강화하지도, 인상을 멈출 근거를 굳히지도 않는 중립적인 결과로 정리된다.

선물시장이 반영하는 금리 경로(이달 말 동결, 12월 인상 중심)와 기존 전망은 이번 발표로 바뀌지 않는다. 다음 확인 지점은 11월 발표될 10월 선행지표에서 핵심자본재 주문이 다시 **+0.5%** 이하로 나오는지 여부로, 그 경우 이번 둔화는 한 달짜리 흔들림이 아니라 추세적 약화로 재평가해야 한다.

표 1 과거와 비교 (같은 분류 최근 분석)

발행일	핵심 메시지
2026-10-27 (이번)	9월 내구재 주문은 헤드라인 +1.8%로 시장 예상 +1.7%를 0.1%포인트 웃돌았으나 선행지표인 핵심자본재 주문은 +0.5%로 예상 +0.7%에 못 미쳤다.
2026-09-25	8월 내구재 헤드라인은 전월 대비 사실상 보합(-0.0%)에 그쳤지만, 이는 비방위 항공기 · 부품 주문이 전월 급등분을 되돌리며 -4.3%를 기록한 데 따른 일시적 요인일 뿐이다. 그 일회성을 걷어내고 보면 핵심자본재 주문이 전월 +0.6%에서 +1.6%로 확대되고 수주잔고도 전방위로 쌓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의 무게중심으로 자리 잡은 현재 국면에서
2026-08-26	7월 내구재 신규주문은 전월 대비 1.1% 늘어난 3,393억 달러로 6월(수정치 기준 +0.5%)보다 증가 속도가 빨라졌지만, 이는 항공기 부문 급등이 만든 그림이다. 운송을 제외한 코어 주문과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핵심 자본재 주문은 오히려 증가폭이 눈에 띄게 줄었고, 출하와 수주잔고는 전체적으로는 속도를 유지했지만 핵심 자본재 출하만큼은 증가폭이 축소됐
2026-07-27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2026년 6월 내구재 신규주문은 전월 대비 0.3% 증가해 3,348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월의 4.0% 급락에서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추가 하락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소극적 안도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반등액이 약 11억 달러에 그쳐, 전월에 증발했던 약 134억 달러의 열다섯 분의 일 수준밖에 회복하지 못했다. 두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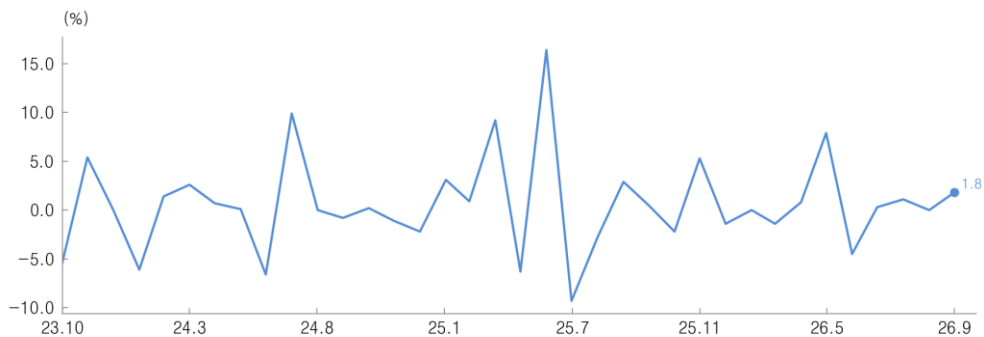
표 2 9월 내구재: 헤드라인 신규주문 vs 핵심 지표

지표	9월 수치	전월 대비 변화	맥락
전체 신규주문(헤드라인)	3,454억 달러	+1.8% (전월 +0.1%)	6개월 연속 증가, 운송장비가 견인
운송 제외 신규주문	2,255.7억 달러	+0.5% (전월 +0.3%)	운송장비 제외 시 완만한 플러스에 그침
방위 제외 신규주문	3,210.8억 달러	+2.2% (전월 +0.3%)	민간(비국방) 수요는 상대적으로 개선
비방위 자본재 신규주문	1,078억 달러	+6.2% (+63억 달러)	설비투자 선행지표, 금액 기준 큰 증가
운송장비 신규주문	1,198억 달러	+4.6% (+52억 달러)	헤드라인 상승의 주된 견인 품목
전체 출하	3,367.6억 달러	+0.9% (전월 -0.2%)	10개월 중 9개월째 증가, 생산 견조
비방위 자본재 출하	971억 달러	+1.7% (+17억 달러)	실제 GDP 설비투자에 반영되는 생산 지표
수주잔고(미이행주문)	1조 6,236억 달러	+0.8% (전월 +0.6%)	27개월 중 26개월째 증가, 적체 여부 불명확

표 3 핵심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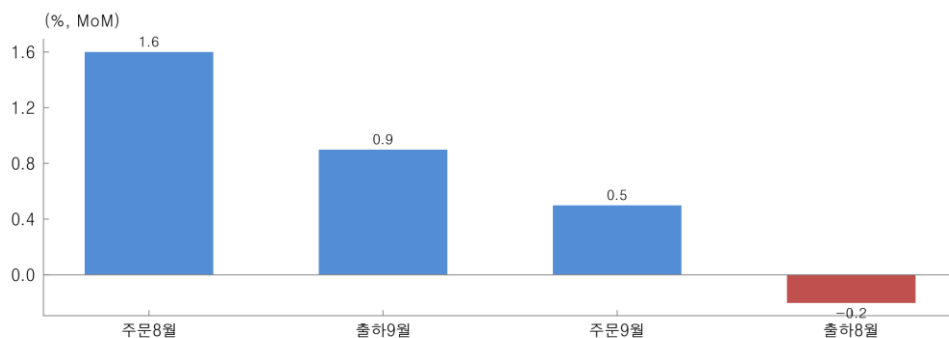
지표	값
내구재주문 변화(\$B)	6.3
내구재주문 전월대비(%)	1.8

그림 1 미국 내구재 주문(전월비)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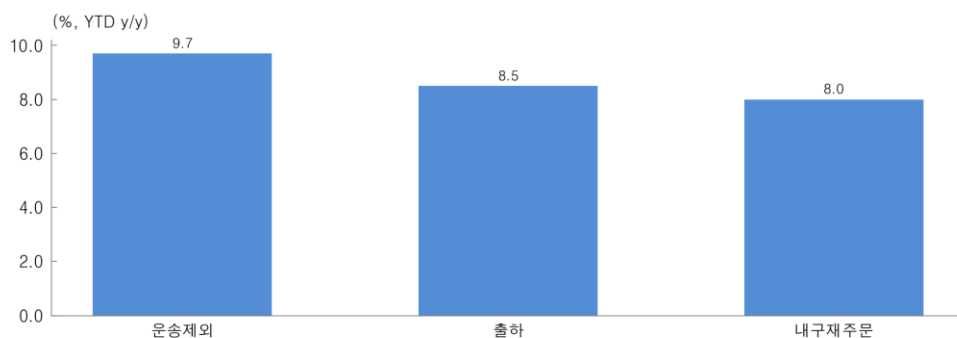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핵심자본재 주문 둔화 vs 전체출하 가속 (전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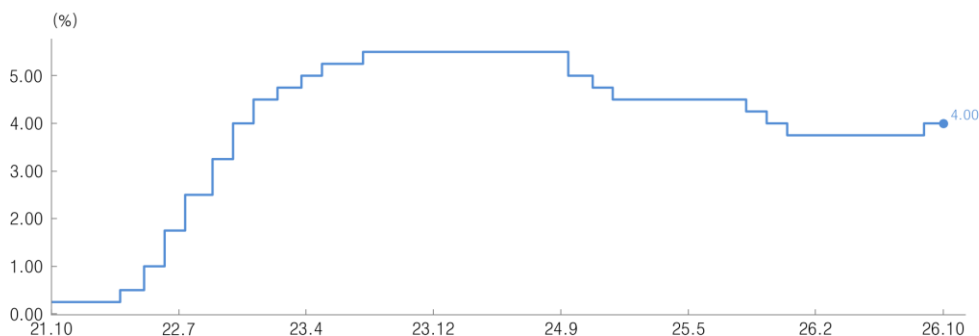
자료: 발표기관 보도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연초 누적 전년대비 증가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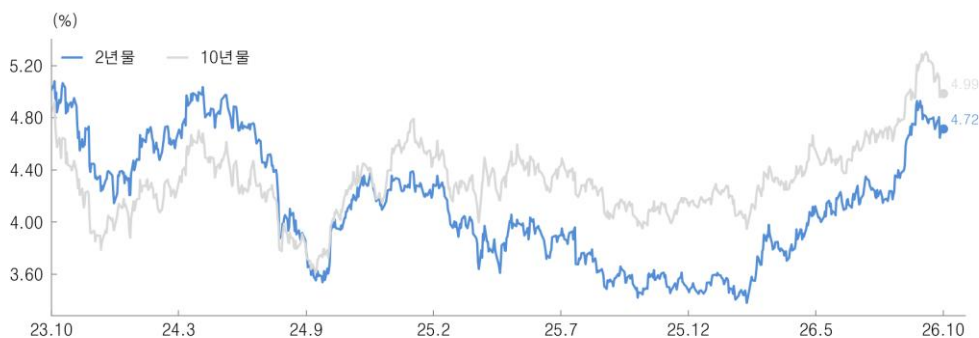
자료: 발표기관 보도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미국 정책금리(연방기금 목표 상단)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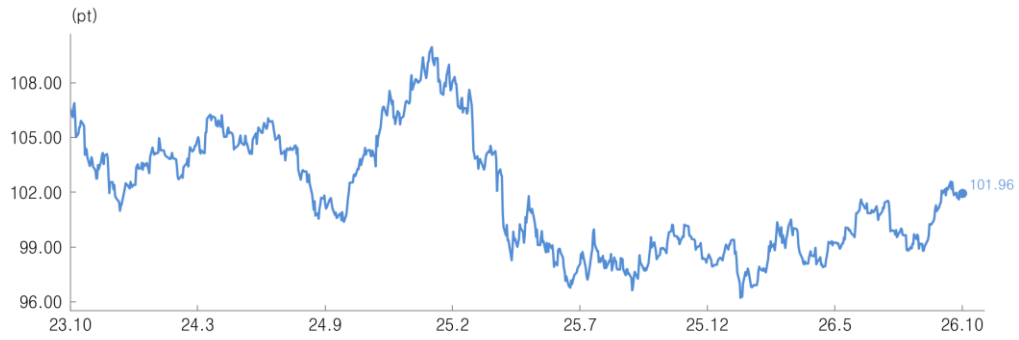
자료: CEIC(2026-10-26 기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 미국 국채금리 (2년·10년) 3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6 달러지수(DXY) 3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